



[금융]
BNK금융 차기 회장
김지완 연임 무계
05



Economy

코스피	2119.01 (0.00)	코스닥	642.48 (0.00)
금리 (연평균)	1.30 (0.00)	환율 (원/달러)	1191.80 (+6.80) (1.31)

저금리 고착화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퇴시기가 빨라지고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져서다. 돈 벌 시간은 줄어 들고 장수리스크는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시중 부동산자금만 1000조원이 넘었다. 대기성 투자자금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메트로신문은 '재테크, 길을 묻다'를 주제로 상품별 전망과 투자전략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안전형 해외자산 관심 초저금리에 리츠 열풍

재테크, 길을 묻다

재테크 트렌드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시장 안갯속 사모펀드 환매제한에 투명상품 선호 달려채권 등 안전형 해외투자 확대 중장기 유망한 부동산 리츠도 주목

투자시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제적으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한 미·중 무역분쟁의 불안감이 남아있고,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하반기 미국 대선으로 나타날 글로벌 정치변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정치도발 변수가 위기로 꼽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부문 실적 회복세가 관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소매판매나 설비투자가 개선됐다. 이렇듯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상황에선 어떤 재테크 전략을 세우야 할까.

메트로신문은 2일 주요 증권사와 은행에서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PB(프라이빗뱅크)에게 새해 재테크 전략을 물었다.

올해 재테크 트렌드는 '안전제일'

전문가 대부분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고객의 재테크 성향이 더욱 보수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성수 NH투자증권 왕십리WM센터 팀장은 "최근 몇 년간 재테크에 대한 고객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방식이 아닌, 본인의 자산을 지키면서 수익을 내기 위한 방식으로 투자에 접근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예전에는 단순한 주식형 펀드 등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분기 혹은 연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형 리츠 상품 등

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문희 하나은행 본점영업부 PB부장은 "과거에는 PB특화상품인 사모펀드에 관심이 많았으나 최근 사모펀드의 환매제한 이슈로 인해 공모형주식인덱스펀드 및 상장지수 ETF 등 투명하고 단순한 구조의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차원에서 통화 분산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늘어 나고 있다. 특히 달러 및 엔화는 금융시장의 위기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있고, 향후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도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은 커지는 양상이다.

정아란 KB증권 도곡스타PB센터 부지점장은 "국내에 국한된 투자에서 해외 직접투자(주식·ETF·채권·리츠 등)로 고객의 투자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 예·적금 위주의 투자에서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중위험·중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로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증권 PB는 "국내 주식형 자산에 편중되던 양상에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재테크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며 "특히, 과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일부 투자자들이 고수익형 자산인 해외주식 중심으로 투자했던 과거와 달리, 달려채권 등 안전형 해외자산으로 투자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 간접 투자 열풍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아란 부지점장은 "2월 16일 실시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및 금지 대책으로 강남3구 중심의 고가주택 가격은 단기적으로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서울지역 주택공급의 부족이 지속되고, 초저금리도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문희 부장은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 및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으로 실무 투자 대신 부동산 펀드·리츠 등을 통해 부동산 자산에 간접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리츠의 경우 주식투자의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며, 5% 내외의 배당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유망하다. 지난해 공모방식으로 모집한 롯데 리츠와 NH프라임리츠는 63대 1과 317대 1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고 말했다.

<5면에 계속>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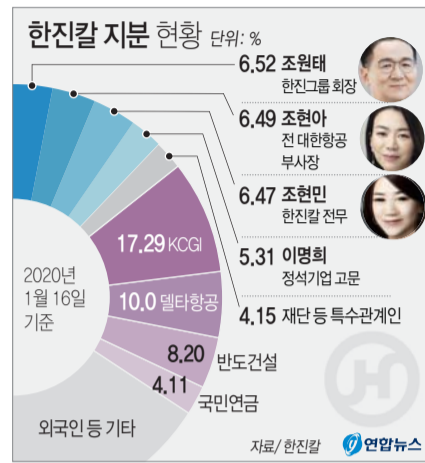
조현아 연합군 '反조원태' 전선 구축

KCGI·반도건설과 손 잡아 "전문경영인제도 도입할 것"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결국 KCGI(강성부펀드)·반도건설과 손을 잡으면서 3월 한진칼 주종이 안갯속에서 빠져드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한진가 '남매의 난'이 주종한 달여를 앞두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원태 회장에게 "공동 경영의 유혹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실제 '반 조원태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 이에 따라 오는 3월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두고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전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이들은 법부법인 태평양을 통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다가오는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 한진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그동안 KCGI가 꾸준히 제기해 온 전문경영인제도의 도입을 통한 한진그룹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 한진칼의 등기이사는 조 회장과 석태수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한진칼은 이사 선임 및 해임 안건을 일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출석 주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안건이 통과된다.

문제는 '반(反) 조원태 연합'과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한진칼 지분은 6.49%다. 여기에 반도건설(8.20%)과 KCGI의 지분(17.29%)을 합하면 총 31.98%가 된다. 반면 조원태 회장은 6.52%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총수일가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와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재단 등 특수관계인(4.15%)의 지분을 모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22.45%에 불과하다.

여기에 한진그룹의 백기사로 분류되는 델타항공(10%)과 우호지분 카카오(1%)까지 하면 33.45%가 된다. 반 조원태 연합에 단 1.47%포인트 차이로 우세할 수도 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주와 일반 소매 주주 등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환자 3명 추가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며 여러가지 표정을 짓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국내 확진환자는 3명이 추가돼 총 15명이다. 15명 모두 상태는 안정적이며, 사망설이 돌았던 4번 환자도 안정적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주 내 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신종 코로나 확산 초비상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하며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관련기사 2·3·4면>

지역사회 전파 늘어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환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환자 가운데 13명 환자는 지난 달 31일 귀국한 교민 1명으로 28세 한

국인 남성이다. 이 환자와 함께 1차로 귀국한 우한 교민은 368명으로, 나머지 367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2차로 입국한 우한 교민은 333명이다.

14번 환자는 40세 중국인 여성으로 12번 환자의 배우자다. 일본에서 감염돼 입국했으며 자가 격리 중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번 환자는 43세 한국인 남성으로 20일 우한시에서 입국했으며 네번째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해 능동감시 대상이었다. 1일 부터 경미한 감기 증상을 호소해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30일 부터 이날 까지 나흘간 확진자는 11명이 늘어났다. 사람 간 전파를 통한 2차, 3차 감염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

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감염자들이 회복을 받기 까지 지역사회 동선이 넓고 접촉자도 많아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커졌다.

다만, 아직까지 감염 경로를 모른채 확진된 환자는 없는 상태다. 국내 처음으로 사람 간 2차 감염된 6번 환자는 3번 환자의 친구로 강남 한일관 식당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했고, 6번 환자에 얽아 3차 감염된 10번 환자와 11번 환자는 그의 아내와 아들로, 같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불허

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